

## 황원철 前 정비본부장

포스코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포스코 창립과 건설, 조업 그리고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창업세대를 비롯한 대내외 인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포스코의 참된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포스코 창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희생과 불굴의 정신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대내외 인사들의 활약상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lt;편집실&gt;



1981년 4기 포항 석회소성공장 준공 후 전기실 앞에서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한 황원철 석회소성공장장(둘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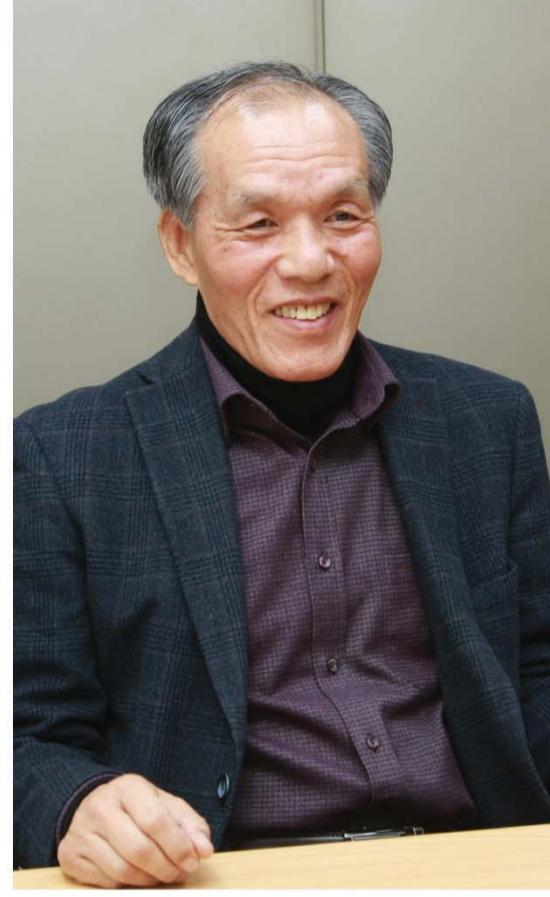


1994년 11월 4일, 광양 4기 원공 후 열린 '정비인의 날' 행사에서 황원철 설비관리부장(둘째 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이 정비 OB인 정세훈 초대 광양제철소장 등 선배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0년 1월 15일 포항제철소 공무부 건물(서브센터) 철거 및 정비센터 신축 기념행사에 참석한 황원철 정비본부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 정비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설비는 진화한다



오재욱 sangwook@posco.com

황원철 전 본부장은 "현재 제철소의 설비 하나 하나가 최적으로 안정적 조업에 이른 것은 '고장과 복구'가 수없이 반복된 결과이며, 정비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설비는 진화한다"고 말했다.